



광남일보





광주 RISE, 5년간 773억 투입 65개사업 추진
시·17개 대학, 비전 선포...인재 양성 본격화



신안 증도서 자연·음악 하나 된 축제
5~7일 관객 주도 채류형 'TGC 2025' 개최



곡성 '매일 만나는 소아과' 만족도 100%
고향사랑기부제로 운영...친절·접근성 호평



광주도시공사, 대한민국 ESG 대상 장관상 영예
주거복지 선도 기업...사회적 책임경영 성과 인정

조간 제7918호 대표전화 062-370-7000 광고문의 062-370-7070 GwangNam.co.kr 2025년 9월 4일 목요일 (음력 7월 13일)

기아 광주공장서 만든 'EV5' 수출시장 공략



준중형SUV 첫 전용 전기차...유럽·캐나다 등 정조준
1회 충전 460km 주행...스포티지·셀토스 잇는 기대작

기아 오토랜드광주의 첫 전용 전기차인 '더 기아 EV5(The Kia EV5, 이하 EV5)'가 공개됐다. 기아는 5번째 전용 전기차EV5를 국내에 출시하고 4일부터 계약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기아는 지난달 29일 노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EV5 1호차 양산 기념식을

가진 데 이어 광주 1공장에서 양산을 시작했다. EV5는 기아가 EV6, EV9, EV3, EV4에 이어 다섯 번째로 선보이는 E-GMP 기반 준중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로, 고성능 GT-라인이 함께 출시된다. 중국에 먼저 출시됐는데 국내 모델은 소비자 니즈와 법규 등을 고려해 디자인

과 주행 및 안전 사양을 달리했다고 기아는 설명했다. 유럽, 캐나다 등으로도 수출될 예정으로, 스포티지와 셀토스를 잇는 광주공장의 수출 효과자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장은 기아의 디자인 철학인 '오퍼티 유나이티드'(상반된 개념의 창의적 융합)에 기반해 기본 박스형 차체에 곡선형 디자인을 접목했다.

전장 4610mm, 전폭 1875mm, 전고 1675mm, 축간거리 2750mm로, 준중형 전기차 대비 넓은 실내공간을 갖췄다. 2열 레그룸은 1041mm에 달한다. 여기에다 1열과 2열 센터 콘솔에 수납공간을 마련하고, 2열은 폴플랫 시트를 적용해 고객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다수 확보했다. 또 965ℓ의 라기지 공간도 제공한다. 동력성은 면에서 EV5는 81.4kWh의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와 160kW급 전륜구동 모터를 탑재해 최고 출력 160kW, 최대 토크 295Nm를 발휘한다.

전비는 5.0km/kWh로, 1회 충전 시 460km 주행이 가능하다. 다만 EV5는 국내 배터리 3사가 아닌 중국 CATL 배터리를 탑재했다. EV5에는 현대차그룹 최초로 가속 제한 보조 기능이 적용됐다. 정원정 기아 국내사업본부장(부사장)은 "EV5는 정통 SUV 바디타입 기반의 뛰어난 공간 활용성을 바탕으로 국내 EV 대중화 시대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대표 모델"이라며 "합리적인 패밀리 전기차 구매를 고민하는 고객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원정 기자 aura@gwangnam.co.kr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 개막을 이틀 앞둔 3일 오후 광주 서구 월드컵경기장에서 대회 참가선수들이 연습을 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LH 전세임대 처리 일주일 단축 주유소엔 '내일 가격' 표시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 임대 처리 기간이 평균 3~4주에서 1주까지 단축된다. 유가 변동을 감안해서 주유할 수 있도록 주유소엔 '내일 가격' 표시, 기차 탑승 이후에도 이용자가 직접 좌석을 변경 가능, 주말과 공휴일에도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정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개선안을 발표했다. 사회적 약자 지원부터 생활 편의, 행정 절차 간소화, 교통 및 여가 증진, 공공데이터 개방까지 모두 5개 분야 33개 과제가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생활 편리성을 높이고자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을 주말·공휴일에도 가능케 하고, 중소형 폐가전 배출 수거함도 주민센터, 마트 등을 중심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LH 전세 임대 신청부터 계약까지 처리 기간을 기존 3~4주에서 1주까지 단축하고, 진행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위변제하는 이행청구권과 관련하여 이사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이사일을 전화·메일로 통지해야 했지만 앞으로 모바일 이사통지 시스템을 구축해 편리하게 이사일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한다. 주유소에는 '내일 가격'을 표시하도록 추진해, 석유제품 가격을 예측하고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성호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오프닝쇼 '활의 나라' 펼쳐...대회 열기 고조

민주주의 상징 금남로 일원서
고싸움놀이·K-팝 공연 등 다채
출전국 선수단 숙소 입국 '환영'

광주2025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 개막을 이틀 앞둔 3일 대회 성공 개최를 지원하는 오프닝 쇼 '활의 나라'가 금남로 일대에서 열렸다. ▶관련기사 12면 세계양궁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선수단도 속속 광주에 도착해 훈련에 돌입하는 등 대회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3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이날 동구 금남

광주2025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 D-1

로 전일별245부터 금남로공원까지 구간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전 국민의 대회 관심 유도과 축제 분위기 조성과 '명화의 울림' 슬로건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민들과 세계양궁연맹 총회 및 대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광주의 문화와 정체성을 널리 알리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첫 무대는 국가무형유산 제33호인 '고싸움놀이'로 꾸며졌다.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 개막식에서 시연됐던 전통놀이

인 '고싸움놀이'를 통해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 양궁대회의 위상을 높일 계획이다. 광주 양궁의 역사와 5·18민주광장의 역사적 의미를 소개하는 영상 상영에 이어 광주시립창극단의 풍물 공연과 함께 예향의 도시 광주를 세계에 알리는 다양한 공연이 선보였다. '알리'와 '노라조' 등 초대가수가 무대에 올랐다. 이번 행사는 기존 행사와 달리 의례적인 인사말과 축사를 최소화해 축제 분위

기가 끊이지 않도록 구성됐다. '오프닝 쇼'라는 명칭에 걸맞게 전체적으로 쇼 형태의 흐름으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오프닝 쇼'는 '금남로 차 없는 거리' 행사로 열려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이번 대회조직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번 오프닝 쇼 '활의 나라'는 대한민국, 광주양궁의 우수성과 대회 결승이 열리는 5·18민주광장의 역사성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양궁대회 참가국 선수들도 속속 광주에 도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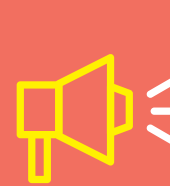
이날에는 아이슬란드 선수단을 비롯해 중국, 폴란드, 인도, 필리핀 등 8개국 56명의 선수단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조직위는 자원봉사단이 환영 현수막을 펼쳐주고 선수단을 맞이했으며 대형버스를 이용해 광주 숙소까지 수송하고 있다. 또 숙소에서는 세계양궁대회 기념품을 증정하며 선수단을 환영했다. 선수단 맞이에는 광주대·호남대 학생들로 구성된 대학생 서포터즈가 활약한다. ▶2면에 계속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지속·반복적인 노출로 움직이는 영상매체



지역·타겟 맞춤광고 가능



높은 주목도



저렴한 광고비

이번정류장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2층
(중흥동)

다음정류장
H | 주 | 광주버스방송

광고매체 위치
운전석 뒤, 하차문 뒤 (총 2개)





버스 내부 모니터 광고 문의 ☎ 062) 223-6511